

2020년 12월 31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식품부 AI 국내방역반 반장 이기중(044-201-2551), 서기관 황성철(2555) 제공일: 12월 31일(총 3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신년 연휴 동안 전국 일제 소독 실시 - 전북(고창·부안), 경기(김포), 경북(경주)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총 4건 확인 -

-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김현수 장관, 이하 '중수본')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의심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야생조류에서도 다수의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, 이번 신년 연휴 기간 동안 대대적인 소독 활동을 개진한다.
- 중수본은 12월 31일, ①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(약 10천수 사육), ②경기 김포 산란계 농장(약 80천수), ③경북 경주 메추리 농장(약 10천수), ④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(약 50천수)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의심사례가 발견·신고되었다고 밝혔다.
- ①·③: 해당 육용오리농장 및 메추리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·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 검출

②: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
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 검출

④: 해당 농장에 대한 출하 전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 검출

* 4건 모두 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, 고병원성 여부는 1~3일 후 나올 예정

○ 국내 야생조류에서의 AI 항원(H5/H7형) 검출*도 12월 들어
급증하여 전국적으로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.

* (10월) 4건(고병원성 2) → (11월) 25건(고병원성 13) → (12월) 68건(고병원성 30, 검사중 14)

□ 중수본은 축산관계자 이동이 적은 이번 연휴를 이용, 2021년
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3일간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 시설·
차량, 주요 도로, 철새도래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.

○ 가금농장은 문자메시지 발송, 지자체 전담관, 생산자단체, 계열화
사업자를 통해 농장 주변 생석회 보충과 함께, 농장 마당, 축사 내부,
농장 내 차량·장비·물품을 집중 소독토록 지도·홍보하였다.

- 특히 종오리 농장과 부화장, 종계 농장과 부화장은 종란 운반용
난좌·파레트·합판·상자, 집란용기(바구니) 등 오염원 전파·
유입요인이 될 수 있는 장비·물품 소독을 각별히 당부하였고,

- 농장의 외국인 종사자도 일제 소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.
- 축산 시설(도축장·사료공장·식용란선별포장시설 등)은 작업장 내·외부(어리장(가금운반장), 팔레트 등 장비·물품 포함)와 차량 진출입로를 소독하고,
 - 축산 차량도 거점소독시설 및 소속 축산 시설 내에서 차량 외부 및 하부 뿐만 아니라 내부(운전석 발판 등)까지 꼼꼼히 소독하도록 업체와 차량 운전자에게 일제히 전파하였다.
- 가금농장 주변과 도로, 하천·저수지 일대도 해당 지역의 기상 여건을 감안하여 방역차량·광역방제기·살수차·드론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, 소독 활동을 지속한다.
-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“가금농가와 관계자가 잠시 소독 활동에 미진한 순간, 야생조류로 인해 전국에 퍼져 있는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”으로,
 - “이번 신년 연휴 기간을 가금농장과 축산시설·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소독 활동을 통해 고병원성 AI 확산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아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 - 아울러 “겨울철에도 소독 효과가 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장·시설에서 운영 중인 소독시설에 대한 방한 조치 및 소독제 희석배율 준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